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현구 연합뉴스기자

초야구부 2014년 101→84개로 뚝

“학생이 없어요, 이제 야구 못합니다” 군산의 눈물

송경모 국민일보기자

한국경영인증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

'체육기관 최초' 대한체육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김경현 스포츠투데이 기자

폭행혐의로 입건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전야구선수 정수근, 술병 폭행 혐의 인정... '진짜 미안하다'

김지혜 중앙일보기자

동시 개최는 광주가 역대 세번째

'2025세계양궁선수권'...광주, '장애·비장애인' 동시 개최

류형근 뉴시스기자

#황의조 #불법촬영 #서울경찰청

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선수 2차 기해 혐의 추가입건

손구민 MBC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 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 지도자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스포츠계 비리 척결과 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 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기한을 명시해 신속성을 확보했다.

체육 지도자의 윤리 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비위 근절을 위해 지도자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 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현재 운영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사행 산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나이 제한 기준을 20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로 변경해 통일성을 유지했다.

“학생이 없어요, 이제 야구 못합니다” 군산의 눈물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없는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초창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였던 김성한 해설위원은 15일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해 말 후배들의 부탁을 받고 모교인 전북 군산 중앙초를 찾았다. 60년 역사의 야구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학교 관계자와 대화했지만 뾰족한 대안은 못 찾았다.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구부 시설물도 있는데 방치해둔 채 한없이 기다릴 순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 연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다. 초저출생의 충격파로 한국 스포츠의 균열은 이미 시작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뿌리’인 유소년 스포츠가 흔들리고 있다. 스포츠지원포털에 따르면 2014년 101개였던 초등학교 야구부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84개가 됐다. 스포츠클럽까지 포함한 12세(중전 13세) 이하부 선수는 같은 기간 4316명에서 3804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상황이 특히 열악했다. 팀은 4개인데 선수는 47명이었다. 평균 12명이 채 안 됐다.

중앙초가 대표적이었다. 지난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중앙초 야구부 선수는 총 5명(새학기 기준)이었다. 이들 중 8월까지 남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개학 직후 2명이 팀을 떠났고, 1학기를 마친 뒤 남은 3명도 나갔다. 최고참 정우(가명·13)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중학교 때 상경할 계획이었으나 앞당겼다. 4학년 동갑내기 영민(가명·11)과 진수(가명) 역시 중앙초를 떠났다. 정우 아버지 A씨(49)는 “(중앙초) 여기서 대회에 못 나가지 않느냐”며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야구에도 황금기는 있었다. 1970, 80년대엔 호남 야구의 산실로 통했다. 지금은 군산상일고로 간판을 바꿔 단 군산상고 야구부가 그 중심에 있었다. 1968년 창단해 4년 만인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부산고를 5대 4로 꺾고 우승했다. ‘역전의 명수’란 별명이 이때 생겼다.

중앙초도 한 축을 담당했다. 헛수로 따지면 군산상고보다 5년 이른 1963년 야구부를 창설했다. 이후 김성한과 정대현 신경현 이대수 등 프로야구 스타들이 여럿 교정을 거쳤다. 김 위원은 “전교생이 3000명이었던 시절”이라며 “시멘트 포대를 글러브, 공사판 각목을 배트 삼아 뛰어놀던 동네 아이들에게 야구부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영광의 시대’를 끝낸 건 인구 감소였다. 한 번 속도가 붙자 멈출 줄 몰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군산의 0~12세 주민등록연앙인구는 4만9940명이었다.

이는 2022년 2만6654.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군산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7.9%에서 10.1%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1.604명에서 0.877명이 됐다.

설상가상 도심 공동화까지 찾아왔다.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외곽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빠졌다. 구도심 복판에 있는 중앙초는 여파를 정통으로 맞았다. 전교생이 200명 안팎으로 줄었다.

다음 장 계속

야구부도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15년 9월 부임한 오장용 감독에게 떨어진 최우선 과제는 신입 모집이었다. 반년 뒤면 부원 12명 중 9명이 졸업할 터였다. 그가 찾은 해법은 발로 뛰는 것이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명함과 전단지를 들고 야구부가 없는 지역 내 학교를 전전했다. 육상대회도 찾아다녔다.

다행히 10월 중순까지 목표 인원을 채웠다. 이후로도 해마다 10명 안팎을 모집하며 야구부 명맥을 이어갔다. 정우는 마트 앞에 나붙은 전단지를 보고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던 부친을 졸라 야구를 시작했다. 영민은 친형과 멀리 던지기 내기를 하다 오 감독 눈에 들어 스카우트됐다. 진수는 또래보다 큰 체격을 이유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 입단 테스트를 봤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 달 뒤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었다. 각종 대면 행사가 줄줄이 취소·연기됐고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신입 부원 모집은 뚝 끊겼다. 2020년 20명에 육박했던 부원 수는 2022년 10명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이듬해 6학년들이 빠지면서 3명까지 감소했다. 정규 경기를 못 치른 지는 넉 달이 넘어갔다.

오 감독과 학교 측의 결정은 부원 상시 모집이었다. 도 대회 참가를 위해선 9명, 전국 대회에 나가려면 10명을 확보해야 했다. 오 감독은 직접 스카우트에 나섰다. 야구부 담당 교사는 인근 학교들에 모집 공문을 보냈다.

야구교실 개설도 노력의 일환이었다. 야구에 관심은 있지만 전학이 부담스러운 타 학교 학생들을 위해 취미반을 열었다. 방과후 강사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탓에 총급여가 반토막 났지만 추가로 매 주말 10명 안팎의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다.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달 넘게 취미반을 운영했으나 한 명도 정식 입부하지 않았다. 오 감독이 권유차 만난 학부모들에게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인식이 대표적이었다. 취미반 소속 주현(가명·11)이는 “꿈이 야구선수인데 엄마가 싫어한다”며 “진짜 할 거면 목숨 걸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경제적 부담도 빠지지 않았다. 월 30만원 수준의 비용이었지만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찾아온 상황에선 적잖은 부모들이 부담을 토로했다. 중장기적으로 따지면 설득하긴 더 어려워졌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중학생 아들을 야구클럽에 보내고 있는 B씨 부부는 “원래 야구부 회비와 영양제 등 각종 관련 비용을 합쳐 다달이 50만원 정도를 썼다”며 “중학생이 된 뒤로 지출이 2.5배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 레슨은 기본이 된 세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비수도권인 군산은 사정이 나았지만 추후 수도권으로 전학을 보낼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났다. A씨는 “수도권에선 초등학교들도 전부 레슨을 받는 실정”이라며 “평고 한 시간에 10만~2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위원은 “중앙초는 군산 야구의 뿌리 중 하나”라며 “초등학교 3개-중학교 2개-고등학교 1개 구조에서 아랫돌이 하나 빠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 특히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며 “유독 전북의 타격이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7명으로 서울·세종과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중 가장 낮았다.

교육청은 해체 전의 중앙초 야구부처럼 당장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길 역시 열어줬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지도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클럽을 운영하는 만큼 타 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훈련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선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건 이미 수년 전”이라며 “발맞춰 클럽 전환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체육기관 최초' 대한체육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체육기관 중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알렸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은 11일 오후 4시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임직원을 비롯하여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전문 인증기관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그 실행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인권경영을 도입한 대한체육회는 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인권홍보 등 다양한 인권사업을 추진하여 인권 경영 강화에 노력해 왔다.

윤성욱 사무총장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체육계 인권경영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병 폭행 혐의 인정... "진짜 미안하다"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1차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화를 내며 A씨의 머리에 술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인해 A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사건 이후 A씨에게 "진짜 미안하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세계양궁선수권'...광주, '장애 비장애인' 동시 개최

광주에서 2025세계양궁대회에 이어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도 펼쳐진다.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이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양궁연맹은 지난달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정기 집행이사회를 열고 2025세계장애인양궁대회 유치 신청을 한 광주와 중국 베이징 등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광주는 양궁도시이자 인권도시로서의 광주 위상, 대회 개최 의지 등을 강조했다.

세계양궁연맹은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의 관련 시설 준비상황, 국제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을 평가해 최종 개최지로 확정했다.

광주시는 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단을 확대·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양궁대회 슬로건 시민 공모,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장 확장사업, 대회 홍보와 실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장애인대회 동시 개최는 광주가 역대 세번째"라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수송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후 7일 동안 광주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리커브, 컴파운드, W1(중증장애), 시각장애 등 4개 종목에 50여개국, 4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선수 2차 가해 혐의 추가 입건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를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황의조 선수와 황 선수 측 범무법인을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황 선수를 지난 12일 불법 촬영 혐의로 10시간 가량 비공개 소환조사했으며, 조만간 황 선수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선수는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튀르키예, '전쟁 100일' 세리머니 이스라엘 축구선수 체포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5128800108?input=1195m>

외신 기자 신청만 120명... 벌써 뜨거워지는 부산탁구선수권

<https://www.news1.kr/articles/5289662>

다이빙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국제연맹 승인 대회 참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5_0002592308&cID=10501&pID=10500

축구선수 '복근', 나도 가지고 싶다면? 2가지 운동 효과적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5/2024011501068.html

세종충남대병원, 6개 종목 장애인 선수 8명과 고용계약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4_0002591297&cID=10818&pID=10800

'준우승' 안병훈, 세계랭킹 13계단 뛰어 39위... 한국 선수 중 3번째 높아

<https://www.news1.kr/articles/5290855>

“감독이 밤에 문 열어 놓으라고...” 스페인 女 축구 선수의 폭로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14/O2O7NUTV6NAIZ

[GXJI4HEBCLLQ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14/O2O7NUTV6NAIZ/GXJI4HEBCLLQ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8세 선수와 '4시간 혈투'... 마지막까지 빛난 조코비치의 품격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99337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